

슬픔에 잠긴 나그네

A Poor Wayfaring Man of Grief (29)

평화롭게 ♩ = 96-112

1. 슬 — 품 에 잠 — 긴 나 그 네 내 옆 을 지 — 나
 2. 먹 — 을 것 적 — 은 상 앞 에 내 말 없 이 나 그
 3. 내 가 보 니 나 그 네 샘 가 에 힘 없 이 누 — 워

가 찾 면 서 거 절 할 수 없 는 도 움 — 나
 았 아 와 네 밤 식 을 구 하 매 모 두 주 니 축
 있 었 네 맑 은 물 목 — 이 마 른 그 를 조

에 복 게 간 절 히 구 할 때 어 디 서 와 — 어
 롱 하 닷 — 고 먹 으 때 내 게 도 주 어 받
 통 하 닷 — 이 녀 녀 니 쓰 러 진 나 그 내

디아 로 가 며 이 름 도 문 — 지 못 하 나 그
 아 보 보 니 그 것 은 은 천 사 의 것 이 라 급
 세 워 세 — 번 물 을 을 때 — 먹 이 고 서 나

눈 에 나 도 모 를 무 엇 - 있 어 내 사 - 랑 끝 렸 네
 히 - 입 에 녕 었 더 니 - 부 스 러 기 는 만 끝 나 였 네
 그 - 물 마 셔 보 니 다 시 는 목 이 마 르 지 않 았 네

4. 한밤 중 큰비 나고
 차가운 겨울 바람 불 때에
 나그네 음성 듣고
 내 집에 들어 오게 했네
 따뜻이 몸을 녹이며
 침상에 누어 놓고서
 나도 누우니 예덴 동산에서
 꿈꾸는 듯하였네

5. 매 맞아 온몸 다친 나그네
 길가에서 보았네
 죽은 듯 누워 있는 나그네
 살려 숨을 쉬게 했네
 먹을 것 마실 것 주어
 나그네 고쳐주고 나니
 내 고통 사라지고
 화평이 내 맘에 가득 왔네

6. 그 후 그가 감옥에 갇혀
 형벌 받음을 보았네
 모두 조롱과 박해했으나
 나만은 공경 표했네
 그는 그를 위해 나 기꺼이
 죽을 수 있나 물었네
 나 힘도 없고 두려웠으나
 내 하리라 대답했네

7. 그때에 내가 보니
 그는 나그네가 아니라
 손에 못자국 난 구주
 내 눈 앞에서 계셨네
 내 초라한 이름 부르며
 내게 말씀하시길
 두려워 말라 네가 한 모든 것
 내게 한 것이라

작사(영어): James Montgomery(1771~1854)
 작곡: George Coles(1792~1858) 개작
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하기 전에 부른 찬송가.
History of the Church, 6:614~615 참조.

마태복음 25:31~40
 모사이야서 2:17